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10월 13일
제목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본문	요한복음 2:1-11

녹취

• 서론

복음의 빛 된, 증인 될 우리에게 전도자의 자세죠. 오직 언약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전도자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No 하거나, 그게 아니고 이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죠. 전도자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물론 자세하게 헤아려야 할 게 있겠지만 그건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다. 무조건 청종, 순종이다.

이 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나의 진짜 문제 무엇인가? 전부 다 한 개가 필요하다. 문제는 만 가지,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되겠지만 진짜 답은 하나다. 필요한 건 하나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바로 복음의 망대가 굳게 세워져서 답이 나와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필연성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주신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답이 나와 된다. 복음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요한복음 설교에 요한복음은 첫 부분에 팡파레를 울린다고 했다.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다.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 참 빛이 되신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할 때 나에게 복음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사탄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졌다, 사탄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무너진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제일 첫 번째부터 강력하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 원주 하나님 되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역의 핵심 되신 그리스도로 또 복음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본문

1. 인간의 근본문제

첫 번째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1)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2)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3)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4)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5)

1)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깨지는 난감한 상황

예수님 많은 손님 가운데 청함을 받은 초청받은 잔치자리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도 청함 받은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을 알려드렸다. 예수님 동문서답이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잔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2) 인간의 근본문제 -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가 무엇인가?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될 즐거움과 기쁨과 그 상징이 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자리에 포도주가 잔치 음식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유대나라에는, 그게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난감한 상황이다.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대로 우리 인간의 난감한 문제 생긴 문제가 뭐냐?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난감한 문제가 무엇인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복음을 드러낼 때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다. 사탄, 마귀 유혹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게 죄다. 원죄를 말한다.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는 바로 이 문제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세상 어떤 책에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난감한 문제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 사건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이죠. 그 잔치의 즐거움, 행복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이다. 그런데 사탄 유혹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이 선악과 따 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을 것이며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 사탄의 유혹의 넘어가서 하나님은 명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언약인데 절대로 따 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것이다. 넘어갔다. 그래서 일단 쳐다봤다. 사탄의 말 유혹받아 미혹받았다. 선악과 쳐다보니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사탄에게 완전 넘어갔다. 그래서 따먹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즉시 인간의 근본문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행복, 모든 기쁨, 하

나눔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 싸그리 없어진 것이다. 이것을 실낙원이라고 한다. 모든 축복과 행복이 다 깨어졌다. 우리 인간의 근본 원인 문제가 여기에 이거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신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 상태 영적상태 다 똑같이 마귀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재앙, 저주 속에 고통 속에 죽음과 멸망이 오고 엠 2:3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즉 인간은 되는 게 없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한다. 또 행복한 것 같은데 가짜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실패한다. 하나님 떠난 인간 근본문제 바로 그 문제다.

3) 하나님이 당장 길을 열어주심 - 복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주심 (창3:15)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세전 영세 전에 벌써 이 문제 해결하는 답인 그리스도 복음 예비하시고 당장 길을 여셨다. 즉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화과 나뭇잎 엮어서 아담과 하와가 둘렀다. 하나님 떠나보니 육안이 밝아져서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워 죄책감이 들었다. 여호와와 낯을 피하여 얼굴을 가렸다. 고안해 낸 방법이 종교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인간이 만든 방법이다. 종교란 말이다. 가렸는데 해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다가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 즉 그리스도 보혈의 피 흘리사 양의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 즉 복음을 주셨다.

제가 느닷없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근본문제로 끌고 왔겠는가? 설명하자면 주석과 많은 설교 옛날 지금까지 저도 들어왔는데 이 은혜도 받고 하는데 당연하게 들었다. 이스라엘 나라 포도주는 생명과 같다. 설명하면 길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다. 그런데 황무지에도 깊이 밑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생명수 물을 끌어올려서 앞을 피우고 또 열매 맺는 게 포도다. 생명수다.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은 물 대신에 물이 없어도 포도주 있다면 생명수다. 그게 가장 귀중하게 떨어졌다, 약간 알레고리컬 해석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떨어지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이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본 원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할 때 우리 사람의 방법, 종교, 기타 모든 위대한 사람들 길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었던 나뭇잎 해결책 방법이 아니다. 종교 방법이 아니다. 빨리 캐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복음, 그리스도 가죽옷을 입혔다. 즉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다.

2.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 말씀 따라가는 제자)

두 번째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했다. 우리 전도자의 자세요 절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반대 사탄의 말 불신앙 말, 사람 말 얼마나 유혹받는가? 거의 사람말 따라간다. 불신앙 말 따라간다. 이것을 속지 않아야 된다. 절대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1) 잔치 주관자 (신랑, 사람들) - 포도주를 구하러 갔을 것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데 공생애 사역에 제일 첫 번째 기적, 표적을 나타내신 곳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다. 여기에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 잔치 주관자 아마 신랑 아버지겠죠. 아들 장가보낸다. 잔치하는데 연회장이라고 했다. 잔치 주관자 손님이 많이 왔고 청함을 받은 예수님까지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제자들도 왔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 걱정하죠. 아마 포도주 구하러 아는 사람 동원했을 것이다. 누구 집에 포도주 저장되어 있다, 빌려달라, 사겠다. 아는 사람 또 포도주 가게 이웃마을에 포도주 가게 있는데 빨리 사람 보내서 사와. 또 포도주 생산하는 공장에 빨리 보낸다. 이게 종교다. 즉 복음이 아니다. 종교 사람 그 어떤 것도 해답과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갔다.

이때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의 근원 해결자 되시는 근원에게로 갔다. 그리스도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로 갔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스도께 갔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들,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 있을 때 사건, 문제 생길 때 교회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주로 사람 찾아간다. 사람에게 간다.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상담, 포럼 했다 시원하다고 한다. 답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근원 되시는 문제 해결자 근원되시는 분에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아직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지 않고 계신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원의 언약 성취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런데 아직 당장 알리지 말라고 했다. 세 번 중요하게 가르치셨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벌써 말씀하신 것이다. 그 어떤 종교, 사람, 어떤 위대한 자도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 원죄와 하나님 떠난 근본문제로 인한 재앙, 저주, 고통 해결자 아니다. 문제 근원 해결자 되시는 근원에게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 갔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간 근원, 문제, 근원적 해결자 그리스도께 가야 유일한 답이다. 저와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는 말 그 말이다. 예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런데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속 주 그리스도 되심을 여기서 나타내신 것이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 그대로 하라는 말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요 그릇이다. 토를 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다. Yes, 아멘이다. No,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내 생각이다. 내 생각 사탄에 벌써 영향받았다. 우리는 전도자의 근원적 자세를 정말 우리가 망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 - 청함을 받은 손님일 때는 아무런 역사도 없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잔치 손님이죠.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절대 주권자로 모실 때 이때부터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영접이 필요하다. 누구를 영접하는가?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 주인을 영접하는 게 필요하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 말하자면 이 잔치 이제 청함을 받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 주권자로 예수님을 모셨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중에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복음편지에도 7과에 보면 나와있다. 영접이 필요하다. 누구를 영접하는가? 사탄 영접하면 마귀자녀죠. 누구를 영접하는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것이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주권자로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머리되시고 주인, 주권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보면 동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 안에 의자를 표시했다. 이건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요 주인이요 구원 주로 정말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표현했죠. 의자에 중심의 의자에 십자가가 놓여져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권자로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다. 주인으로 모신 것이다. 그다음 표현에 또 있다. 이런 그림도 있다. 또 동그렇게 해서 의자

가 있고 의자 안에 나, 나가 앉아있고 즉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 밑에 의자 옆에 표시해 놔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육에 속한 자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주권자, 하나님으로 진짜 영접하지 않은, 교회는 오는데 구원받지 못하거나 육에 속한 자를 말한다. 또 그림이 있다. 또 동그렇게 해서 의자가 있고 여기에는 의자에 그 중심에 보니까 사탄이 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의자 옆에도 아니다. 의자 밑에 사탄 그 밑에는 나라고 되어있다. 동그라미 밖에 십자가 표시 되어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불신자 마귀자녀를 말한다.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특히 나의 모든 삶에 모든 것에 주권자, 주인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4)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신데 말씀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주인으로 주권자로 영접해야 된다. 가나 혼인잔치에 드디어 주인 되셨을 때 주권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자로 모시라. 영접하라. 말씀하신다. 돌 항아리 여섯 개 있는데 물을 가득 채우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다. 여섯 항아리 가득 흘러넘치도록 가득 채웠다. 예수님 즉시 말씀한다. 떠서 연회장 잔치자리에 가져다주라. 하인들이 지체하지 않고 물을 부었는데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주고 잔치자리에 손님들에게 줬다.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이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 알지 못하고 너무 좋은데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 칭찬한다.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낮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두었다가 우리에게 대접하는군요. 연회장이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주께서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주인으로 역사하

서 기적을 베푸시고 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랬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그래 말이야. 하인들이 물을 채워라, 말씀 그대로 그 즉시 물을 채우고 가득 찼다. 떠서 가져다주라.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게 나온다. 30분 기다렸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거다 그 말씀도 없고 하인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즉시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고 그다음 가져다주라 그 즉시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떠다가 가져다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창조의 역사 일어났다.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우리의 사건, 문제, 현장에 창조주 되신 주권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치에 안 맞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신학교에 3학점 하나를 신청해서 수업을 들었다. 그 교수님이 프린스턴 대학 출신 박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가르치신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강의를 들었다. 이분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넘어가지 않았다.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기적 안 믿는다. 물 위로 예수님 걸으셨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창조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적 안 믿는다. 공공연하게 말한다. 예수님 물 위로 걸었는데 달빛이 바다에 비쳤는데 그 그림자가 비쳐서 물 위로 걸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사람의 육신의 혈통, 마귀의 자녀, 아담의 후손 아니다. 첫 번째 아담 실패, 두 번째 참 아담이 오신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육신의 혈통 죄의 원죄를 타고난 자가 아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 놀라운 비밀이다. 성육신 하여 오시는데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다. 이 분이 강의를 한다. 안 믿는다. 그런데 놀랍게 신비하다. 자기는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분이 신학교 교수다. 우리 대한민국에 신

학교 교파가 있다. 사실 1/2 넘는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 밑에 훈련받은 목사님이 나오는 교단들이 1/2 넘는다.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아멘 하는 교단 근본주의자, 보수주의라고 매도당한다. 안 믿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청중, 순종하는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역사 일어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창조의 역사 일어났다. 창조주 되신 구원주, 우리의 주권자,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인으로 주권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 유월절 어린양 양의 피 발라라, 9번째 재앙 하나님의 능력 나타났지만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즉 죄와 사망의 그 마귀 사탄 망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양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구원받겠나? 여기 불평, 저기 불신앙 everybody 불신앙 했다면 그날 역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전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양, 흠 없는 어린양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대신 어린양 잡아라. 아멘하고 양을 잡았다. 양의 피를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양의 피 발랐다. 말씀대로 발랐더니 그날 구원의 역사 일어났다. 해방의 역사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도 토 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 가는데 또 원망, 불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 하나님 말씀 언약 안 믿는다. 광야길 와보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가나안 땅 언약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광야길 도는 동안 불신앙, 불신앙 하는데 그 언약 싹 잊어버렸다.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불신앙 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냈는데 불뱀이 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간다. 통통 부어서 해독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어디 있는가? 막 죽어간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한다.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하십니까? 회개합니다. 이 백성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또 복음을 주셨다. 모세 보고 해독제 이거 백성들에게 주사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치에 안 맞는다. 모세야 구리로 뿔뿔을 만들어라. 뿔뿔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불뱀을 물린 백성들 쳐다보게 해라고 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니깐 그대로 구리 뿔뿔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올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외쳤다. 구리 뿔뿔 쳐다보시오. 불뱀에 물린 자들 쳐다보는 그 즉시 치유함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구리 뿔뿔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에 다음다음장에 가면 설교 나오겠쥬. 니고데모가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린다. 이거 믿는 자, 쳐다보는 자 이 말은 믿는 자란 말이다. 그리스도를 주권자,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 그 즉시 치유함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까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특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그대로 청중,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이 첫 표적으로 나타내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셨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를 믿으니라 그랬다.

• 결론

캘빈주의 장로교의 핵심 사상이고 핵심 교리다. 우리 장로교를 캘빈주의라고 한다. 그 핵심 교리,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가장 성경을 복음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 교회 주인, 머리 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긴다. 여러분의 가정, 산업,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긴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사건, 문제, 어려움 생긴다. 사람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스도께 주권자로 맡긴다. 그리스도를 해결자로 모신다. 이게 캘빈주의 핵심 사상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요 창조주 되시며 특히 주인, 주권자시다

고백 선언하는 게 캘빈주의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손님으로 말고 오늘 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권자, 주인으로 드디어 섰을 때 창조의 역사 일어나듯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권자로 영접한다. 나의 가정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산업에 내가 사장이 아니고 나의 산업에 사업에 주권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의 현장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특히 나의 겪고 있는 사건, 문제, 어려움, 위기 가운데도 내가 해결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실력, 도움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절대 언약의 말씀이 있다. 결론 중 결론인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겠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의 말씀 주셨다. 망대가 되는 말씀을 주셨다. 1,3,8이다. 갈보리산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 언약, 보좌의 능력, 보좌, 땅 끝까지 능히 증인 되게 하실 참된 능력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1,3,8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망대로 붙들고 237 5천 종족 프랑스와 유럽 53개 나라, 우리 대구, 칠곡 살리는데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우리의 구속주요 주인 되시며 주권자이신 주 예수께 돌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이 아니고 드디어 주인 되셨을 때 창조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주의 성도들 가정에 주시옵시고 사역 현장에 주시옵시고 사건, 문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 방법, 인간 방법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오직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